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이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평생 힘써야 할 일’을 내게 구했기에 편지를 쓰네. 나의 대답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恕]이라네. 이것은 내가 평소 강조했던 어진[仁]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 어진 사람은 공손하고 관대하며 신의를 지키고 민첩하며 자애롭게 행동하네. 어질지 않으면 예(禮)와 악(樂)을 배워 무엇하겠는가? ...(후략).

- 인위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본성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간다.
-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을 분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한다.
- 참선을 통하여 만물의 실상을 깨달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
-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덕을 갖추고 주어진 역할을 다한다.
- 세속을 벗어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의 육체[色]는 변한다. 느낌[受]은 변한다. 표상[想]은 변한다. 의지[行]는 변한다. 의식[識]은 변한다. 이를 관찰하여 일체를 떠나라. 일체를 떠나면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면 해탈할 수 있다.

- 모든 정신적·물질적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 윤회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 선한 행위를 쌓아가야 한다.
-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을 겪게 된다.
-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中道]으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고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을: 영혼은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뉜다. 지성적 덕은 전자와 관련되고 품성적 덕은 후자와 관련되며,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곧 행복이다.

< 보 기 >

- 정의의 완전한 원형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가?
-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 부도덕한 행위는 모두 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가?
- 품성적 덕은 지성적 덕이 없어도 습관으로 형성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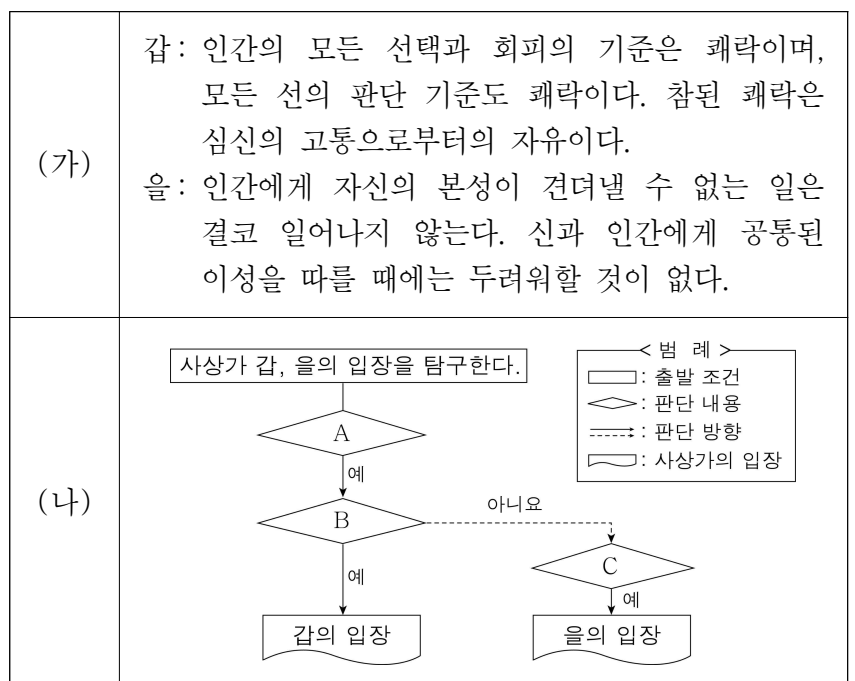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4.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근거한다.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간섭하거나 자유를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법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인은 공화국 안에서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 개인은 시민적 유대를 바탕으로 공익 구현에 헌신해야 한다.
-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개인선은 공동선보다 우선하며 개인선의 총합이 공동선이다.
- 국가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생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이다.

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A: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 A: 마음의 평안에 이르려면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가?
- B: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덕을 버려야 하는가?
- C: 이성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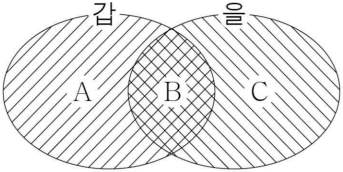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도(道)란 언제나 이름도 없고 자연 그대로 순박하며, 비록 작게 보이지만 천하에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약 통치자가 도를 잘 지킨다면 만물이 스스로 통치자를 따를 것이며, 백성은 아무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 ① 도는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나 언어로 온전히 규정된다.
- ② 도가 천하에 행해지면 인의를 갖춘 현자(賢者)가 숭상된다.
- ③ 도를 인류의 근본으로 삼아 예법(禮法)을 발달시켜야 한다.
- ④ 도에 따라 살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虛靜] 해야 한다.
- ⑤ 도를 체득해야만 자신의 본성을 교정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윤리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이다. 행복의 양은 일곱 가지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p> <p>을: 윤리의 최상의 원리는 의지의 자율이다. 의지가 자기의 준칙에 의해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행위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정신적 쾌락과 감각적 쾌락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 ② A: 의지의 선택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
- ③ B: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④ C: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다.
- ⑤ C: 자신의 준칙을 따르는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8.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투자를 개인에게만 맡기면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므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나) 사회주의는 완전 고용, 생산성 향상, 사회 보장 등을 추구한다. 국가는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생산을 계획하고 주요 부문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 ①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 ②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전면적인 계획 경제를 실시하여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
- ④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시장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⑤ 복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귀나 눈은 생각을 하지 않아 외물의 자극에 끌려갈 뿐이다. 마음을 따르면 대인(大人)이 되고 감각과 욕망을 따르면 소인(小人)이 된다. 어짊[仁]에 거처하고 의로움[義]을 따른다면 대인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을: 귀와 눈은 날 때부터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니, 이것을 따르는 까닭에 지나친 혼란이 발생한다. 사람의 성정(性情)을 따르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므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가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타고난 마음을 확충해야 사단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백성 스스로 예(禮)를 만들어 성정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통치의 목적이 인의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백성과 성인(聖人)의 본성은 같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에게 도덕적 인식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본다.

10. 현대 윤리 사상 (가), (나)의 입장에서 <사례> 속 K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조건부 의무는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같등하지 않으면 실제적 의무가 된다.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같등하면 우선시되는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되고 나머지 의무는 유보된다.

(나) 어떤 행위가 다른 대안보다 더 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될 때만 그 행위는 옳다.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도덕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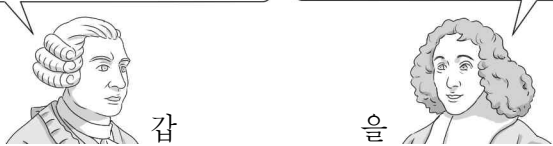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던 K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았다. K는 계속 길을 가야 할지 그 사람을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가): 유일한 도덕 원리인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② (가): 현재의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시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③ (나):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보다 선의지를 따르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④ (나): 도덕 규칙의 공리보다 개별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여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⑤ (가), (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도덕 규칙에 따르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11.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덕과 악덕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인상이나 감정에 의해 구분된다. 이성 혼자서는 의지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행위를 선택할 때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덕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따라 행위하고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 즉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 ① 갑: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감정이다.
- ② 갑: 도덕적 선과 악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을: 모든 감정들의 발생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④ 을: 유일한 실체인 신은 자연의 인과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 을: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2.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통치자의 일은 천하의 이익[利]을 도모하고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천하의 해악이며, 이는 남을 차별하기에 생기는 것이다. 서로를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交別者]은 큰 해악을 일으킨다.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위한다면 어찌 남의 나라를 침략하겠는가?
(나)	제자: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될까요? 스승: ㉠

- ① 존비친소(尊卑親疏)를 엄격히 구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네.
- ② 자신과 남을 차별 없이 대하고 어떤 전쟁에도 불참해야 하네.
- ③ 자국을 이롭게 하는 침략 전쟁은 최소한으로 허용해야 하네.
- ④ 만인을 똑같이 사랑하고[兼愛] 서로 이익을 나누어야 하네.
- ⑤ 문명의 이기(利器)를 없애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하네.

13.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주체적 결정을 피하면서 절망에 빠진다. 무언가에 절망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신을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해야 한다.

- ① 신의 은총이 주어져도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도덕규범을 따르는 것만으로 신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 ③ 심미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야 인간의 모든 불안이 해소된다.
- ④ 선택 상황에서는 주관적 진리보다 객관적 진리가 더 중요하다.
- ⑤ 자신을 신에게 맡기는 선택을 통해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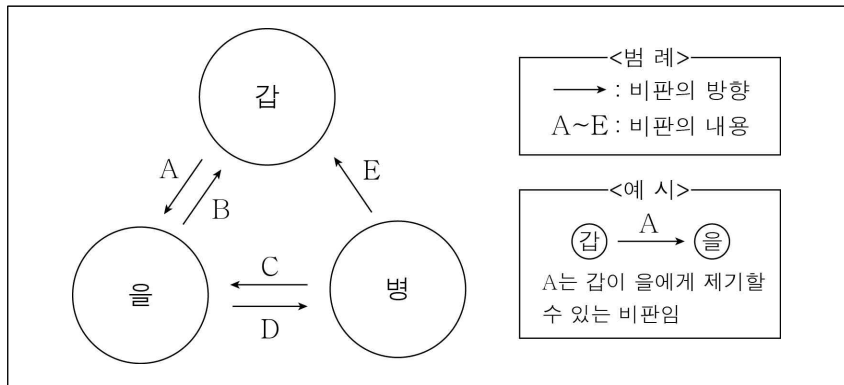
[14~15] 갑은 중국 사상이자, 을과 병은 한국 사상이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부모에게서 효(孝)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에게서 충(忠)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천리(天理)이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을: 부모에게 자극을 받으면 효의 감정이, 임금에게 자극을 받으면 충의 감정이 반응한다. 감정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천지의 모든 변화는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타지 않는 경우가 없다.

병: 부모를 효로써 섬김이 인(仁)이며, 임금을 충으로써 섬김이 인이다. 무릇 사람과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한 연후에 그것을 인이라 일컫는다. 마음에는 본래 덕이 없는데 어찌 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14.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타고난 앎(良知)은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 경향성이다.
- ② B: 사람과 사물이 부여받은 천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 ③ C: 일상생활에서 측은지심을 확충해야 인을 형성할 수 있다.
- ④ D: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은 이법(理法)적 실체가 아니다.
- ⑤ E: 누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을 타고난다.

1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기가 서로 발하여 쓰임이 있고, 또 발하면 서로 기다린다. 사단과 칠정 모두 이와 기를 벗어나지 않으나 기원하는 바에 따라 이것은 이이고 저것은 기라고 말할 수 있다.

- ① 이는 기와 달리 만물에 부여되어 있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② 기가 발하지 않아도 사단이 드러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이는 기질(氣質)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됨을 모르고 있다.
- ④ 기가 발하는 근거는 이의 동정(動靜)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⑤ 이가 발한 사단은 선하며 기가 발한 칠정은 악함을 모르고 있다.

16.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성(自性)은 본래 청정한 것이고, 생멸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모두 갖춘 것이고, 동요가 없는 것이다. 자성을 단박에 깨달으면[頓悟]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을: 자성에 있어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정과 혜는 함께 닦아야 한다. 자성을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나쁜 습관[習氣]은 남아 있으므로 계속 닦아야 한다.

— < 보 기 > —

ㄱ. 갑: 문자를 통하지 않고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
ㄴ. 을: 깨달은 후에도 지속적 수양[漸修]이 필요하다.
ㄷ. 을: 경전을 탐구해야 자신의 마음을 직관할 수 있다.
ㄹ. 갑, 을: 불성(佛性)은 단박의 깨달음을 통해 형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는 척도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을: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알 수 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으며, 덕은 곧 지식이다.

— < 보 기 > —

ㄱ. 갑: 개개인의 상이한 가치 판단은 인정되어야 한다.
ㄴ. 을: 인간의 모든 악행은 의지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
ㄷ. 을: 덕을 갖춘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ㄹ. 갑, 을: 참된 앎을 위해 이성보다 경험이 중시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치지는 격물에 달려있다.’는 것은 내 앎을 온전히 이루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理)를 궁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노력하여 환하게 깨달으면[豁然貫通], 만물의 표면과 심층 전부가 파악되고 마음의 본체와 작용도 모두 밝아진다.

학생 \ 입장	갑	을	병	정	무
마음은 성(性)과 정(情)을 통괄한다.	√	√		√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			√	√	√
인의예지는 마음에 부여된 천리(天理)이다.	√			√	√
본연의 성은 선하지만 악으로 변할 수 있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였기에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인간이 신을 떠나 지극히 비천한 것을 향한 것이다. 지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면 신의 은총을 통해 천상의 나라에 속해야 한다.
을: 신은 그 본성의 탁월성으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있게 한 원인으로서 존재한다. 신앙과 이성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 ① 갑: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② 갑: 신은 인격적 존재이자 선악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다.
③ 을: 인간은 신의 영원법에 근거하여 자연법을 제정해야 한다.
④ 을: 철학적 진리와 계시된 진리는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다.
⑤ 갑, 을: 지복은 종교적 덕을 통해 현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을 통해 각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 평등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을: 사회 계약을 통해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두며, 자신을 전체와 불가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로써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 < 보 기 > —

ㄱ. 갑: 정치적 의무는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ㄴ. 갑: 사회 계약은 입법권과 행정권이 통합되어야 유지된다.
ㄷ. 을: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다.
ㄹ. 갑, 을: 사회 계약 체결 후 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소멸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 교	고등학교
성 명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수험번호						
학교번호				학년	반	번호
				3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감독관 확 인	(서명 또는 날인)	반, 번호 및 선택과목 번호 등의 표기가 정확 한지 반드시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	------------	---

[illegible]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11), 윤리와 사상(12), 한국지리(13), 세계지리(14), 동아시아사(15), 세계사(16), 정치와 법(17), 경제(18), 사회·문화(19)
과학탐구	물리학 I (20), 화학 I (21), 생명과학 I (22), 지구과학 I (23)

※ 뒷면의 수험생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국 사					
문번	답 란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선택 과목 번호		제 1 선택					
		문번	답 란				
십의 자리	일의 자리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6	①	②	③	④	⑤
	②	7	①	②	③	④	⑤
	③	8	①	②	③	④	⑤
	④	9	①	②	③	④	⑤
	⑤	10	①	②	③	④	⑤
	⑥	11	①	②	③	④	⑤
	⑦	12	①	②	③	④	⑤
	⑧	13	①	②	③	④	⑤
	⑨	14	①	②	③	④	⑤
	⑩	15	①	②	③	④	⑤
선택과목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표기 (표기 오류 시 채점 불가)		16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제 2 선택			문		답					란				
			번		안									
선택 과목 번호			1		①	2	3	4	5					
			2		①	2	3	4	5					
			3		①	2	3	4	5					
			4		①	2	3	4	5					
			5		①	2	3	4	5					
십의 자리	일의 자리	6		①	2	3	4	5						
		7		①	2	3	4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①	2	3	4	5						
		9		①	2	3	4	5						
		10		①	2	3	4	5						
		11		①	2	3	4	5						
		12		①	2	3	4	5						
		13		①	2	3	4	5						
		14		①	2	3	4	5						
		15		①	2	3	4	5						
		16		①	2	3	4	5						
사탐/과탐 영역간 동시선택 불가			17		①	2	3	4	5					
			18		①	2	3	4	5					
			19		①	2	3	4	5					
			20		①	2	3	4	5					